환희의 비천벽화 명작

사찰벽화 명작순례

⑱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비천벽화

비천, 하늘의 극예술인

비천은 천상을 나는 하늘 사람이다. 엄숙한 공간에 천의를 나부끼며 출현하는 비천의 장면은 환희와 경이로움으로 이끈다. 부드러움과 유려함으로 신심을 북돋우는 묘한 작용력이 있다. 비천이 출현하는 곳은 곧 환희의 공간이고 지극한 즐거움의 공간이고 상서로움의 공간이며 법열의 공간이 된다. 비천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기쁨과 환희, 성스러움의 세계로 이끈다. 불교장엄에서 비천은 환희와 상서의 자리에 어김없이 출현한다. 미묘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하늘의 꽃을 뿌리기도 한다. 비천은 부처님의 진리 설법에 감응한 성중의 환희심을 드러내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하늘의 극예술인들이다.

불교 경전에서 표현하는 천상의 음악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천(諸天)의 연주, 곧 비천에 의한 기악 연주의 공양이고, 다른 하나는 〈법화경〉 제24 '묘음보살품'에서처럼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천악 불고자명(天樂 不鼓自鳴)'의 방식이다. '불고자명'은 연주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울린다는 의미다. 비천은 부처님 진리 설법에 대한 환희와 공양 예경의 주체이고, 저절로 울리는 음악은 불국토 장엄으로서 법음의 현현과 다름없다. 불국토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음악'은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이나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천정반자에 그린 악기벽화처럼 주악비천 없이 악기만을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무량수경〉에 그 대목이 나온다. '유악기현처허공 여천보당 불고자명(有樂器懸處虛空 如天寶幢 不鼓自鳴)'. 악기가 허공에 매달려 있어 하늘의 보배 깃발과 같으며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린다는 것이다. 또한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그 모든 음악은 극락정토의 불국토 장엄으로서 불·법·승 삼보를 예경하는 염불·염법·염승의 작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경전에서 비천이 등장하는 대목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법화경〉의 제23 '약왕보살본사품'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불교조형에 나타나는 여러 비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제천 작천기악 가탄어불, 이위공양(諸天 作天伎樂 歌歎於佛, 以爲供養)'. 즉 하늘의 천인들이 천상의 기악을 연주하고 노래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며 공양 올린다고 적고 있다. 여러 천인이 하늘의 악기를 연주한다는 '제천 작천기악(諸天 作天伎樂)'의 표현은 〈관무량수경〉의 제6관 '보루관(寶樓觀)', 〈법화경〉 제7 '화성유품', 〈대반열반경〉 등 여러 경전에 등장하는데 그 표현은 경전에 사용하는 거의 관용어에 가깝다.

경전 속 제천(諸天), 곧 비천은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악기 연주의 기악(伎樂). 둘째, 노래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가탄(歌歎). 셋째, 공양(供養). 그에 따라 불교 장엄예술에서 비천은 통상 세 부류로 표현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 음악과 춤사위를 펼치는 가무비천, 과일이나 꽃, 향, 차 등의 육법공양을 올리는 공양비천, 그 셋이다. 그것은 부처님 진리 설법 공간에 펼치는 악(樂)과 가무(歌舞), 공양(供養)으로 이어지는 의례와 상통한다.

기악 7, 가무 3, 공양비천 1점

법당 천정에 아름다운 비천벽화가 현존하는 곳은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을 비롯해서 합천 해인사 명부전, 대구 동화사 영산전, 영덕 장육사 대웅전, 제천 신륵사 극락전,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완주 송광사 대웅전 등 20여 곳에 이른다. 그중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비천벽화는 크기나 역동적인 묘사, 구성, 채색 등에서 단연 시선을 끈다. 종교장엄의 성스러움과 규모, 섬세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화면 구성, 예술적 미 등을 두루 갖춰 한국산사 비천벽화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천은 기악·가무·공양의 천인
천정의 비천벽화 전국 20여 곳
가무, 공양비천 손에 한삼 착용
비천, 진리 설법에 환희심 표현

완주 송광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후인 1622년에 세웠다. 2층의 중층건물이었다. 1814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수 중건하는 과정에서 1층으로 줄여 지었다. 대웅전의 안둘렛기둥 영역의 중심부 천정은 우물반자이고 밭둘렛기둥 영역의 가장자리 천정은 대여섯 널판으로 길게 엮은 대형의 빗반자이다. 남측면과 동서측면 가장자리 빗반자천정에 11점의 비천벽화를 베풀었다. 비천벽화를 그린 시기는 1857년 무렵으로 추정한다. '송광사 대웅전 중건상량문' 기록에 의하면 1857년에 대웅전 마지막 중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빗반자에 그린 비천벽화는 모두 11점이다. 정면 남측면에 7점, 좌우 동서측면에 각각 2점씩 그렸다. 하나의 화면은 대여섯 장의 널판으로 구성했다. 한 화면 크기는 가로 1.2~1.5m에 이르고, 세로는 1.6m로 거의 같다. 주악, 가무, 공양비천 모두를 표현하였다. 기악비천은 7점, 가무비천은 3점을 그렸고, 공양비천은 1점만 그려 배치했다. 11점 비천의 구성은 〈표〉와 같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악비천(횡적).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비천벽화 중 가무비천과 공양비천.

	벽화 개수	소재 구성
기악비천	7	장구, 북, 비파, 긴 나발, 횡적(2), 바라
가무비천	3	소매에 한삼 끼워 펼치는 역동적 춤사위
공양비천	1	보주 공양

〈표〉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빗반자천정의 비천벽화 구성

열한 분의 비천 중에서 열 분은 여성이고, 횡적을 머리 위로 지켜 들고 흰 소맷자락을 펼치고 있는 기악비천 한 분만 남성이다. 성별의 차이는 머리 장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다른 모든 여성 비천은 깃을 꽂은 전립을 쓰거나 갖은 장신구로 꾸민 귀부인 머리, 또는 둥근 고리를 가진 선녀 머리 등으로 머리 꾸밈을 하였지만 남성적인 그 한 분만 초록 적삼의 평민복 차림에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허술한 민머리를 하고 있어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비천벽화에선 정재(呈才)나 의식무에서처럼 성스러운 자리에서 펼치는 가무 공연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연주의 특성상 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기악비천을 제외하고는 가무비천, 공양비천은 손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맷자락에 덧대거나 손목에 끼워 소매를 길게 확장하는 한삼(汗衫)을 착용하여 손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 손목에 착용한 한삼은 팔동작인 춤사위를 보다 우아하게 연출하는 효과와 함께 신체가 노출되지 않는 신중한 몸짓으로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는 극진한 예경의 태도도 갖추게 한다. 보주를 공양 올리는 공양비천이 소매에 흰색 한삼을 갖춘 것도 부처님께 헌공하는 극진한 예경을 반영한 까닭이다.

한국산사 비천벽화 대표할 걸작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비천벽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역동성에 있다. 전통 가무에서 살아 호흡하는 춤 선을 펼치기 위해서는 깊은 굴신(屈伸)과 발의 디딤새, 손동작 등은 필수적이다. 벽화에선 허공의 자유로움만큼이나 다양한 굴신과 디딤새, 손동작을 펼치고 있어 놀라울 지경이다. 몸을 클 대(大)자로, U자로, L자로, 유영하는 인어 형상으로, 의자에 앉은 듯한 자세 등 저마다 자유자재다. 굴신의 폭이 깊고 크다. 굴신의 뼈대엔 힘이 흐른다. 게다가 발의 디딤새는 대지를 박차고 뛰어오른 듯 역동성을 더한다. 중심이 단단한 뼈대의 등걸에서 부드러운 꽃이 피듯 춤사위가 바람을 탄다. 가볍고 자유롭다. 춤사위와 기악의 선율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우아하게 너울댄다. 덩달아 긴 천의 자락과 한삼을 덧댄 소맷자락이 혼연일체로 풀어진다. 벅찬 환희의 선율, 환희의 춤사위가 덩실덩실 신명을 타는 극적인 장면을 그렸다. 태극 속의 음양처럼 힘과 부드러움이 조화로운 명작 벽화들이다.

그런 명작 중에서도 정면 남측면의 벽화 한 점은 특별히 탁월하다. 대웅전 내부에서 남측면 벽화를 바라볼 때 향우측 빗반자에 조성한 주악비천벽화가 그 주인공이다. 긴 횡적을 불고 있는 주악비천벽화는 한국산사 비천벽화를 대표할 만한 걸작이다. 동양회화의 핵심원리로 삼는 경영위치(구도), 응물상형(묘사력), 수류부채(색채), 기운생동 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다.

주악비천은 특별히 고고한 의장까지 두루 갖췄다. 머리엔 화려한 깃을 꽂고 영락 구슬로 장식한 끈을 갖춘 전립을 썼다. 한쪽 무릎은 펴고, 한쪽 무릎은 세운 자세로 허공에 비스듬히 누워 유영하는 자세로 악기를 불고 있다. 천인의 손목에는 신령한 기운이 구름처럼 자욱하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도 바람을 탄다. 자태는 티 없이 맑고 청정하다. 아름다움의 아우라까지 갖춘 희유의 주악비천이다.

목과 손목, 허리에 천의 자락이 우아하게 휘감겨 바람에 펄럭인다. 화면에 충만한 율동적인 천의 자락은 곧 음악 선율의 시각적 표현과 다름없다. 우아한 천의 자락은 음악 선율의 시각화이고, 음악은 부처님의 진리 설법과 자비에 감응한 중생들의 벅찬 환희심을 예술장엄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종교와 예술이 만나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엄예술의 명작이 탄생하곤 한다. 완주 송광사 비천벽화가 그런 사례다.



노재학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